

# 세계 속 전법의 길에 첫 발을 딛는다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힘찬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운성, 일양, 성원, 태허, 원경, 청하, 정호 스님. 스님들의 출가처는 각각 다르지만 국제불교학교 동기로 도반의 정을 나눴다.

## 국제불교학교 제1기 졸업생 배출...9명 전원 국제포교 현장으로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세계 속에서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실현할 9명의 스님들이 배출됐다. 2년 동안 해외연수 등을 통해 해외포교 현장에서의 역할을 배양한 스님들은 세계 곳곳의 활발한 포교로 회향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학장 법인)는 2월 22일 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조계종이 설립한 국제불교학교는 해마다 10명의 학인 스님을 뽑아 영어를 중심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전체 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 유일하게 우리말을 쓰는 시간이 새벽 4시에 진행되는 예불 시간 뿐이다. 원어민 교수와 함께 오전부터 영어 회화 및 영어 읽기 및 쓰기, 영자 등의 영어수업을 오후에는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스님들의 지도 하에 영어로 전반적인 불교의 교리 공부와 함께 외국에서의 수행, 참선과 템플스테이 지도방법 등을 배운다.

첫 시도인 만큼 그동안 9명 비구니 스님들에게 건 중단 안박의 기대는 컸다. 그 기대만큼 졸업학생들은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됐다.

법인 스님은 “조계종단이 처음으로 시행하

는 교육체계인 만큼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사히 모두 졸업하게 됐다”며 “2년 전 입학한 9명의 스님들은 종단 곳곳에서 인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졸업한 9명의 스님들의 활동분야는 다양했다. 먼저 국내에서는 전국비구니회에서 국제협력업무 및 통역과 번역을 담당할 성원 스님, 동국대 국제센터에서 영어법회 법사로 학생들을 지도할 불림 스님, 전국 사찰에서 외국인 템플스테이 법사를 담당할 운성 스님과 원경 스님, 일양 스님 등 5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떠나 해외포교를 진행하고 있는 성제 스님을 비롯해 미국 미네소타 주 청하 스님, 미국 워싱턴 주 정호 스님과 미국 선센터에서 연수담당을 맡을 태허 스님 등 4명이 배출됐다. 졸업식에서 총무원장상을 받은 성제 스님은 영상을 통해 참석하기도 했다.

국제불교학교 제도를 도입한 교육원장 현웅 스님은 “오늘날 80%이상의 지적 정보가 영어”라며 “어느덧 세상이 세계화되며 영어로 모든 지적정보를 저술하고 생산하고 소통하는 세계가 됐다. 한국불교 현실에서 영어 소통 능력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날의 의미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법 포교의 여건도 변하고 있다”며 “종단이 더욱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동안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 국제불교학교 교수 지정 스님은 “한국에서는 우리 불교가 세계에서 나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불교는 교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라며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의 장벽인 만큼 이번 학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예불 제의 원어민과 영어로 전체 교육 미국 등 해외연수 통해 국제감각 익혀 국내외 포교 ‘한국불교 세계화’ 다짐

화운사 주지 도현 스님도 “더 넓은 세상에서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졸업식에서는 화운사 선원 출신이기도 한 운문사 주지 일지 스님이 참석해 후진들의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지 스님은 “출가 당시 한문이 중요하다고 해 공부한 것이 훗날 한문강사를 시작으로 강단에서 등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제 불교 가르침을 영어로 퍼는 시대인 만큼 국제불교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계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앞두고 졸업생들은 자신감과 함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성제 스님은 영상을 통해 “아르헨티나에 와 보니 교회가 50군데인데 한국사찰은 2군데에 불과하다. 이곳에서 열심히 불교를 알려 교민을 비롯한 이들이 불심을 갖고 살도록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 삼불사에서 포교활동을 펼칠 청하 스님은 “2년 동안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현지 도착했을 때 애로점이 없었다. 외국인을 접하고 두려움없이 다가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애틀 정각사에서 포교활동을 펼칠 예정인 정호 스님은 “역시 출가한 쌍둥이 동생에게 국제불교학교를 추천해 최근 동생이 입학했다”며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서로 묻고 답하는 부분이 약한데 국제불교학교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의 다짐 속에 졸업식은 영어 발원 낭독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졸업식에 참석한 대중들은 “두려움 없는 공부와 성장, 수행의 길에서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없는 커다란 기쁨에 머무를 때까지 용기와 자비 지혜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제불교학교는 3월 5일 3기 입학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8명. 현장에 나서는 이들의 뒤로 새로운 꿈들이 열리고 있었다. **용인=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원 스님이 학장 법인 스님에게 졸업장을 받고 있다.



2012년 6월 WFB 세계불교도 우의회에서 영어 통역 봉사단 활동 당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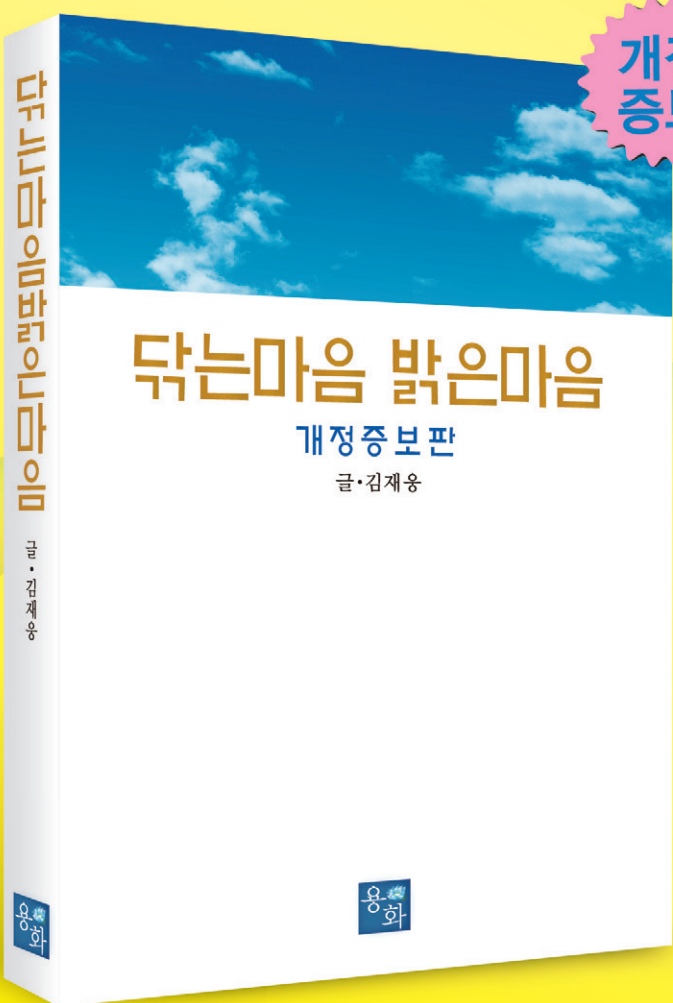


미국 연수에서 만포도시 스님들과 토론하는 모습



2012년 7월 미국 버클리센터 수행자들과의 대화 모습

도서문의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054)261-2231



김재웅 지음  
384면 | 15,000원

## 미국에서 출판 미국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9위 달라이라마가 서문을 쓰고 추천한 마음 공부 필독서

“『**달의 마음 밝은 마음**』은 김재웅 법사님이 그의 스승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엮은 책으로, 밝음을 향하는 여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조언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심, 질병, 기근, 그리고 결국 죽음을 야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내면의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런 선의(善意)를 추구하는 독자들에 이 책에서 소중한 조언을 얻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티베트 승왕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  
Venerable Tenzin Gyatso, the 14th Dalai Lama of Tibet



• 150만권 발행된 저자의 다른 책 『마음 닦는 법』이 곧 새롭게 출간됩니다.